“주치의 만취 출산 수술로 아기 잃었다”

주치의 혈중알코올농도 0.01%…수치 미달 상태

경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사고 여부 감정 의뢰

충북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던 산모가 주치의의 음주 출산 수술로 신생아가 숨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9일 청주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A씨가 제왕절개로 남자 아이를 출산했지만 남아는 곧바로 숨졌다.

A씨의 가족은 직후 “주치의인 B의사와 당직의 C의사의 과실로 아이가 숨졌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가족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B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B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치 미달인 0.01%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진술, 의료 차트 등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의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의 음주 출산 수술로 아기가 숨졌다는 글이 게시됐다.

5개월 된 딸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친정과 시댁에 있는 충북지역의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모 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의사를 만나 임신 중 진료를 받았다”며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없이 양수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전 7시께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그날 B의사의 휴진으로 당직의인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9시께 분주해지는 간호사들과 당직의 C의사가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 아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

청원기간
21-03-21 - 21-04-20

저는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겁니다.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 C시에 있는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M산부인과에 다니게 되었고, C의사가 제 임신과정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였습니다. 순조롭게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두고 하루하루 아이 만날 날을 기다리던 중, 36주 1일차에 진통없이 양수가 터졌습니다. 아침 7시경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그날 제 주치의 C가 휴진이라 당직의인 P가 저를 진료하였는데,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 C가 제왕절개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듣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 9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의 모습과 더불어 당직의 P가 제게 오더니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치의 C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C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당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전 진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황망을 잃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C는 제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에 술을 했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다”라며 주치의 C가 울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P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어렵게 만난 병원장의 말도 가관이었습니다. 병원 구조상 당직의 P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C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랍니다. 당직의 P는 의사가 아니란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어디있습니까. 출산이 여정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텐데 당직의를 근무시켜 놓고, 임연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도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한다니요.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C와 당직의P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명백히 가담한 범죄범입니다.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 C, 당직의 P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분 우수의료진으로 대체의 수임은 신모와 뱃속의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고귀한 생명을 잇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오후 3시 기준 2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뉴시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최이슬 기자

광양소방서, 임야화재 예방 민관공중감시단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지난 18일 광양시 날다 드론교육원과 임야화재 저감 공동대응 및 공중감시단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야화재 드론을 활용한 예방순찰 및 항공시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 등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3년간 전남지역 연평균 746건의 화재가 봄철(3~5월)에 발생하였고 이 중 임야화재는 연평균 44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불 화재 시 신속한 정보제공 ▲항공시설 주변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 상호 지원 ▲기관 상호간 현장체험 및 교육을 통한 정보공유 등이다.

최현경 광양소방서장은 “차세대 드론을 활용하여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을 할 수 있고, 임야화재 공중감시단 운영으로 논두렁 밭두렁 등 소각행위를 초기에 인지하여 임야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등 예방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완도해경, 봄철 농무기 통계 분석 통한 해양사고 예방활동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간 발생한 저시정(농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무기 해양사고를 대비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 사전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른 해상교통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는 사고취약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여객선 등) 선장·해양종사자와 운항관련자 대상 저시정 안전운항에 대한 예방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동함정, V-PASS,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활용하여 저시정 등 항행선박 대상 항행경고와 안전방송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농무기 해양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식 완도해경서장은 “사고는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전환과 항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강진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17일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경찰, 유관기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참석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운전하기, 불법주정차 금지, 정지선 지키기 등을 홍보하며 등굣길 어린이에게는 마스크 등 홍보 물품을 나누어주었다.

박승기 경찰서장은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내 30㎞ 이하 서행 및 불법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강진 경찰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여수경찰, 구 도심권 무단횡단금지 시설물 설치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구 도심권이며 보행자가 많이 왕래하는 동문로 구간(1.5㎞)에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곳은 여수시 구 도심권으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학생들의 무단횡단이 잦았으며, 또한 엑스포역에서 이순신 광장까지 관광객의 왕래가 잦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상존했었다.

여수시 동문로 전 구간에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를 횡단보도로 유도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오상호 기자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전남도 산불방지 특별단속

봄철 기간에 대형산불 집중 발생

영농폐기물 소각 적발시 과태료

전남도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18일까지 한 달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위주의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봄철에 총 5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13.9ha에 이른다. 이는 5년 간 발생 건수(168건)의 32%, 발생면적(33.45ha)의 41.6%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 기간 산불이 집중해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등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1458명을 투입하고 농지,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 임차헬기 8대도 권역별로 배치한다.

전남지역 산림 428개소 15만4000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208개 730㎞ 구간을 폐쇄하며,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합동단속 273개반(896명)을 운영한다.

소각산불 제로화 현수막도 635개소에 내걸고, 마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을 한다.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피해 야간에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1.5배로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 경영활동 후 남은 부산물 66t을 파쇄 처리했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2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상청이 올해 3~4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해 대형 산불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